

## 송암교회 말씀묵상

- 평화의 기도 -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나이다.

-성 프란치스코-

2022년 5월 30일(월)

역전의 은혜

찬송 285장

사도행전 16:35-40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40절)

바울과 실라는 부당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의 주인들의 수입을 끊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주인은 귀신들린 여종의 점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중에도 주님을 찬송했고,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탈옥했을 줄 알고 간수들은 자결하려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머물러 있었기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복음에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시민권자를 가둔 것에 항의하자 로마군은 더 이상 바울과 실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바울 일행에게 여러 고난이 닥쳤지만, 주님은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 질문: 주님 때문에 고난 받은 적이 있나요?

\* 기도: 주님, 복음으로 고난 받게 하소서. 아멘

2022년 5월 31일(화)

참되고 온전한 말

찬송 502장

사도행전 26:19-29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5절)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으나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입니다. 이로서 다시 한 번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철저한 유대 율법수호자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자’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난 빛의 일로 인하여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을 하늘로부터 부여 받았고 지금 사도로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곧 전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듣는 자에게는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 질문: 누군가에게 참되고 온전한 말, 곧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 기도: 주님! 내가 전하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참되고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6월 1일(수)

희망의 노래

찬송 165장

시편 29:1-11

“여호와와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와 소리가 위엄차도다” (4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신실하신 그분의 능력만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 있는 소리를 내심은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죽을 만큼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상황을 뛰어넘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일어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는 어두운 현실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며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 질문: ‘하늘소리’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십니까?

\* 기도: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소리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재하소서. 아멘

2022년 6월 2일(목)

마음밭을 가꾸시는 하나님

찬송 213장

이사야 32:11-17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5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불의와 죄악의 편에 선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심판받은 땅은 열매가 나지 않는 땅, 가시와 찔레만 맺는 땅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 메마른 땅은 끝내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 살리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맺을 수 없는 땅의 겉표면을 변화시키시기보다, 땅속 깊은 뿌리서부터 갈아엎으십니다. 생명력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나무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토양 자체를 바꿔야 하니까요. 쟁기를 드셔서 묵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려서 새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 질문: 내 마음 밭에 자라나고 있는 찔레와 가시 같은 나쁜 열매들은 무엇인가요?

\* 기도: 주님, 내 마음 밭을 갈아주셔서, 새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6월 3일(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찬송 96장

갈라디아서 6:7-10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9절)

사도바울의 말처럼 믿음의 사람은 선을 행할 뿐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씨 뿌림의 원칙을 믿기 때문입니다(7절).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씨를 뿌리면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욕심의 씨를 뿌리면 죄와 사망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영적인 씨앗을 뿌릴 때 언젠가는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결의 믿음의 가정들과 더불어 이웃을 향해 선한 행실을 지켜가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주님의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 질문: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 기도: 주님,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2022년 6월 4일(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송 104장

누가복음 1:15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통해 다시 모여 ‘주의 몸된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세례요한의 삶 전체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성령 충만한 시간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주의 선한역사가 성령충만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 질문: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 기도: 주님,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하소서. 아멘

2022년 6월 5일(주일)

성령의 언어

찬송 190장

사도행전 2:1-21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기한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할 점은 그들이 성령으로 인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언어를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모두가 서로 알아듣지 못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모두가 서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모두에게 열려진 복음의 소식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요엘 말씀을 선포했고, 성령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선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소통되지 않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 질문: 나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 기도: 주님, 성령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소서. 아멘